

풍흉을 예측하는 신목의 느티나무



지정번호 천안-8-3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천안

수령 842년

수고 13m

흉고둘레 5,5m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78-8

36° 49' 42.84" N

127° 11' 48.93" E

천안에서 가장 오래 살고 있는 보호수(천안 -8-3) 느티나무는 태조산^{太祖山} 기슭의 성불사 비탈면에 자리하고 있다. 태조산은 예전에 성거산^{聖居山}이라 부르다가 이태조가 기도하였다고 하여 태조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842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3m 정도이며, 원줄기가 고사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에는 높이 25m에 이르기도 하였다. 가슴높이둘레는 55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5m 가량이다. 원줄기는 높이 2.5m 정도까지 뭉뚱하고 그 위쪽이 고사하여 새로운 가지 줄기가 나와 퍼져 있다. 뭉뚱한 원줄기는 한쪽 부분에 충전재 처리의 외과수술 흔적이 있다. 생육상태는 보통이다. 동남구 안서동 느티나무는 나뭇잎 개서^{開紫} 여하에 따라 풍년과 흉년, 그리고 흉수와 가뭄을 예측하였다는

구전이 있다. 느티나무는 충남문화재자료 제10호로 지정된 성불사^{成佛寺}에 있다. 대웅전 뒤의 암벽에 흰 학이 부리로 쪼아 불상을 만들다가 완성하지 못한 절이라 하여 성불사^{成佛寺}라 불렀다. 성불사 경내에는 대웅전, 산령각(산신각), 칠성각 등이 있다. 산령각은 불교와 민간신앙이 결합한 것인데, 소원을 빌거나 재앙을 방지하는 기도와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곳이다. 산령각을 찾은 사람들은 고목의 느티나무에도 기도를 드리곤 하였다. 성불사 경내에는 이 느티나무와 몇 십 미터의 거리에 또 다른 느티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느티나무가 있는 성불사에서 내려다보는 천안 시가지의 확 트인 모습이 참으로 멋지다고 말한다.

